

주철현 국회의원(여수) 신년사

"여수항, 새로운 미래 100년의 밑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여수 시민대표 국회의원 주철현입니다.

힘찬 기운을 품고 하얀 소피의 해,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2020년은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편을 감내하시고, 마스크 쓰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예방수칙을 잘 지켜, 'K-방역'이라는 세계적 모범을 세워 주셨습니다.

최근 백신과 치료약이 출시되면서 어둠의 긴 터널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 가면, 우리는 머지않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2020년, 저는 여수시민의 전폭적 지지로 '여수시민 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시민의 큰 사랑을 느끼면서, 고향 여수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금려월경(金麗月京), 시민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21대 국회 출범 후 한주도 쉬지 않고 여수와 국회를 뛰어다녔습니다. 앞으로 더 뛰겠습니다!

2023년이면 남해안 중심 관문 여수항이 포구를 연 지 100년이 됩니다. 무역항 기능이 쇠퇴된 여수항의 새로운 100년의 밑그림을 시민사회, 중앙정부, 전라남도, 여수시와 함께 그려 나가기야 합니다.

저는 21대 국회 첫 의정활동 성과로, 여수항의 새로운 미래 100년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여수항 미래 100년의 청사진에 '동북아 에너지허브항만',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 비전을 담겠습니다. 여수·광양항의 통합, 여수 신항의 기능 재편, 그리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안정적 사후활용과 구도심 재개발을 미래 여수항 청사진에 꼭 넣어야 하겠습니다.

사법검찰개혁은 멈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2020년 고위공직자 수사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검찰개혁의 법적 토대는 마련했지만,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장치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새해에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들이 보다 고품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여수시민 여러분!

2022년, 민주정권 재창출의 시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집권 4년 동안 우리 사회 기득권·적폐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촛불정신의 주춧돌 위에, 우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기둥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정권 재창출로 촛불정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정권 재창출 전초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들과 함께!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종식 시키고, 시민이 참주인 되는 '아름답고 행복한 여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보고, 더 듣고, 더 뛰어 시민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 시민대표 국회의원 주철현입니다.

힘찬 기운을 품고 하얀 소피의 해,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여수항의 미래 100년 청사진 완성!
국민이 통제가능한 사법검찰개혁!
민주정권 재창출을 위한 시민의 힘 결집!
2021년 새해, 시민과 함께 이뤄 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들과 함께!

시민이 참주인 되는 '아름답고 행복한 여수,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보고, 더 듣고, 더 뛰어 시민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며
여수 시민 대표 국회의원 주철현 올림

여수항 재개발구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비 4억 반영

여수항 새 100년 밑그림 그릴 토대 '마련'

제2삼호교·여수박람회재단·울촌복합산업물류지구 조성 예산 확보

'여수항 재개발구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새해 국가예산에 반영돼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구도심 재생이 담긴 여수항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일

통과된 2021년 국가예산에 당초 반영되지 않았던 여수항 재개발 관련 연구용역비 4억원, 울촌복합산업물류지구(제3투기장) 조성 설계비 36억원, 거문도 제2삼호교 건설을 위한 삼호교 안전진단비, 여수세계박람회

재단 운영비 7억원, 여수 수산물항운 노조회관 신축을 위한 국동 선수품창고 신축비 7.2억원 등이 국회에서 새롭게 반영되었다.

특히 여수항 재개발 연구용역비 확보는 2023년 개항 100주년을 맞아 여수 구항과 원도심, 여수세계박람회장 등 도시재생과 연계한 대규모 개발을 위해 제4차 국가항만기본(수정)계획에 반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어 울촌 복합산업물류지구(제3투기장) 조성을 위한 설계비 확보로 미래신소재·복합첨단산업 및 물류제조시설 유지가 가능해져, 여수국가산단 공장용지 부족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남도·김희재 의원과 함께 여수국가산단 대개조 사업 중 광양만권 산단 소재부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20억원, 여수산단 공용 파이프랙 구조 안전성 확보 사업비 36억원도 확보했다.

주 의원은 "여수항은 석유화학 부두의 광양항 편입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물류 기능은 쇠퇴하고, 역무항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며, "여수·광양항을 통합해 원유·LNG 비축기지를 가진 동북아 에너지허브 항만 및 초대형 해상환적 중심항으로 육성하고, 여수박람회장과 원도심을 연계한 통합 개발로 세계적인 해양관광항으로 육성하는 등 여수·광양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빠져 있던 지역 주요사업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내년에는 사업계획 수립 때부터 숙원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환영...주철현 의원

주철현 의원(여수갑)이 여수시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식으로 올해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고, 65세 이상 노인은 카드사용의 불편함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지난 1년 동안 마스크 쓰기와 개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신 여수시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수시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지난 1년의 힘겨움을 이겨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재차 약속하셨고 코로나19 어둠의 긴 터널 끝이 보인다"며 "마지막까지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이겨 내자"고 강조했다.

주철현, “여수항과 세계박람회장을 남해안 해양관광 메카로”

“2023년 개항 100년 여수·광양항 새 비전 준비를”

여수·광양항 통합, 컨테이너물류→에너지 특화 항만으로 집중육성

2023년 개항 100주년을 맞는 여수항과 광양항을 통합해 새로운 해양 시대에 대한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국가무역항인 여수항과 광양항의 통합과 역할 재정립을 통해 ‘여수항 개항 100주년’을 맞아 여수항과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남해안 거점 해양관광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9년 여수석유화학산단 배후 항만으로 삼일항이 개항했지만, 여수 지역 주민들도 모르게 1986년 광양제철소 배후 항만으로 개항한 광양항에 일방적으로 편입됐다.

이후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조성에 쓰여진 1조8백억원의 빚을 2011년 출범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승계했고, 구 삼일항과 여수항에서 2019년까지 벌어들인 3000여억원의 수입금은 대부분 빚을 갚는데 사용되고, 구 삼일항과 여수항에 대한 주요사업 투자는 200억원대에 그쳤다.

이와 함께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기준(16년~25

년 사업범위)에 따르면 광양항에 2조 8,000억 원이 투자됐지만, 여수항은 3,000억 원에 그쳤다.

정부의 여수쪽 항만에 대한 투자 확대는 여수석유화학산단 부두들의 심각한 체선율로 이어졌고, 여수항과 광양항의 각각의 개항장으로 분리돼 중복 입출항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무역항 서비스의 질도 떨어뜨리고 있다.

현재 광양항 입출항 화물선의 역무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여수항에는 청수 공급시설도 없어, 여수항에서 4시간이나 걸려 광양항 포스코 제철부두까지 오가면서 고비용의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정부는 컨테이너항 2-Port 정책으로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 많은 투자를 해왔지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부산항은 물론 인천항에 뒤처져 있다.

하지만 광양항 전체 수출 물류의 의존도 62%를 차지하는 것은 여수석유화학산단의 유화제품 중심이고, 석유화학 비축기지, 국내 유일 상업 오일허브인 오일허브코리아 그리고 고도 준설토 투기장에는 민자 6조 원의

LNG터미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광양항은 컨테이너 물동량에서 액상·벌크화물 물동량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정부의 항만관리 및 투자, 제도는 이런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여수광양항의 항만 통합과 역할 재정립을 통해 여수광양항을 석유·LNG 등 에너지 특화항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용역을 통해 확인한 국내 해상항적 거점항으로 최고의 입지를 가진 여수광양항을 키우기 위한 제도개선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수항의 2023년 개항 100주년을 맞아 구도심과 연계한 도시재생 기능과 역무 서비스 기능 확대,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세계적인 해양관광 메카 육성을 담은 복합적인 항만 재개발 계획을 크게 그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장관은 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여수항의 항만재개발 구역 지정에 대한 적극 검토와 필요한 제도개선 등 여수광양항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화태도-금오도-연도 연도교 타당성 용역 4억 편성

주철현 “사업착수 결정 적극 환영, 재원 마련 지원 약속”



전남도가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여수시 남면 화태도-금오도-연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에 착수한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해 12월 말 여수시 금오도권(화태도-금오도-연도) 연도

교 건설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4억 원이 반영된 ‘2021년 도로정비사업 신속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전남도는 사업기간 1년여 동안 여수 화태도-금오도-연도를 연결하는 연도교를 지방도로 건설하는 것에 대한 기본조사와 타당성 용역을 진

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금오도권 연도교 건설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주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당정협의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방도로인 금오도권 연도교 건설에 대해 전남도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주 의원은 “김영록 도지사님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금오도권 연도교 건설로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섬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주 의원은 “용역 후 연도교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도 해상교량 국비지원 근거 마련과 여수시 비용분담 등 전남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철현, COP28 유치위 대표들과 이낙연 대표 면담



주철현 의원은 지난달 10일 ‘COP28(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유치위 대

표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이낙연 당 대표를 면담하고 COP28 여수 유치를 건의했다. <사진>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위 대표들은 이날 “내년 COP26 영국대회에서 COP28개최국이 결정되기 전에 국내 개최지가 여수로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건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에 대해 “COP28 여수개최는 영호남이 하나되어 유치를 추진해 동서화합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며 여수 유치 지원을 약속했다.

주 의원은 이와 별도로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를 면담한 결과 여수 개최 지지의사가 여전히 굳건함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유치위 대표들에게 전하며, “더 열심히 유치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남여수시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 새로 확보한 2021년 국가 예산

“여수항 새로운 100년 밑그림을 그릴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여수항 재개발구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비

4억원

울촌 복합산업 물류지구(제3투기장) 조성 설계비

36억원

거문도 제2삼호교 건설 위한 안전진단비

2012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운영비

7억원

국동 선수품 창고 신축비
(여수 수산물 항운 노조회관 신축 관련)

7.2억원

국회의원 주철현

주철현, 한국인터넷소통협회 ‘국회의원 소통대상’ 수상



첫 국정감사, NGO 평가단 ‘빛나는 조선의원’에도 선정

주철현 의원(농해수위)이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빛나는 조선의원’ 선정에 이어 ‘국회의원 소통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진>

주 의원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제13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국회의원소통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13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 소통콘텐츠연구소, THE CONTENTS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신문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시상식이다.

주 의원은 제21대 국회 출범 후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채널, 네이버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과의 정황활동을 소통하고, 국정감사 때는 질의 내용 홍보를 위해 ‘주철현TV’도 개설하는 등 활발한 SNS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서 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주제보다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시키기 위한 꼼꼼한 질의를 펼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으로부터 ‘국정감사에서 빛나는 조선의원’으로도 선정됐다.

주 의원은 민선6기 여수시장 때인 2017년에도 ‘대한민국 소통 CEO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지역에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며 소통의 시간을 갖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더 적극적인 SNS 활동을 통해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산부산물, 자원 재활용 가치 매우 크다”



주철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 입법 공청회 개최

수산부산물 재활용 위한 별도 관리체계·법적 근거 담아

주철현은 지난 11월 12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산부산물 재활용법) 대표 발의에 따른 입법 공청회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사진>

주 의원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 그린뉴딜의 출발은 폐기물을 억제하는 자원의 재순환과 재활용이다”며 “수산분야에서도 자원 순환의 인식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공청회를 시작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과 자원순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원장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법률안 제정에 힘을 실었다.

주 의원은 제21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 6월

수산부산물 재활용법 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5명과 함께 발의했다.

공청회는 박금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수산식품분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동련 신안대학교 교수가 ‘수산부산물 입법화를 위한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토론자로는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이 법률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련 교수는 “일본, 미국, 아이슬란드에서는 굴 껍데기류 등을 재활용재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미국에서는 굴 껍데기를 연안의 수질 개선과 해안선 보호 기능 등을 높이 평가해 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재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계에서도 수산부산물을 자원화해 재활용하고 있는 기업관계자들도 참석해, 수산부산물의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제도 마련에 대해 강하게 피력했다.

곽지훈 현대제철 책임매니저는 “수산부산물인 굴폐각은 제철소의 석회석 대체 활용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산부산물을 활용하면 천연 석회석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하얀 여수바이오 이사는 “2017년 7월 의무화된 재활용 환경성평가의 승인 건수는 총 8건인데 그 중 수산부산물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굴폐각은 법의 규정 취지를 넘어 무조건 폐기물로 보는 환경부의 시각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산업 관계자들도 굴양식업자가 굴을 수확해 알감을 생산함과 동시에 제철소에 석회석 대체원료로 사용될 굴폐각을 생산한다는 목적이라면 굴폐각은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주현 의원이 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해수부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수산부산물 재활용 절차 규정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신설 및 처리 절차 간소화 ▲지자체의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주철현 의원, 농약관리 강화 법안 발의

원제 취급 ‘등록 → 허가’로 안전 조항 신설

주철현 의원은 농업 분야의 제도개선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이고,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된다.

하지만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운반, 보관, 저장 과정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농약 원제업 또는 수입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시설, 장비, 인력을 보다 강화해 현행 등록에서 허가를 받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규제강화에 따라 다소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철현, 국정감사 후속 해양·수산분야 2개 법률안 ‘발의’

11월 26일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발의
정치망어업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과 유사, 감척 법적근거 마련
해양이 아닌 한국해운진흥공사로 법제 변경, 특성·임무·달성 취지 부합

주철현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수산 및 해양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에 따르면 허가어업인 정치성 구획어업은 어업구조개선(감척)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일정한 수면을 구획해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포획하는 정치망어업은 면허어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실정이다.

하지만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어업·어종별 금어기가 새로 설정되고, 어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연안에 설치되는 정치망어업은 급속하게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어업 활동을 영위하기보다 포기를 원하는 정치망 어업인이 증가해, 감척 대상 사업에 포함 시켜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성이 어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수산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정 법률안은 ▲면허 어업인 정치망어업도 어업구조개선(감척)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어, 통상 ‘해양’은 해양수산, 해양운송, 해양항만, 해양조선, 해양관광 등 5개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현행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은 공사의 명칭과 달리 ‘해운’ 관련 진흥업무만 담당하고 있어, 해양업무 전체를 진흥시키는 기관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았다.

공사의 특성과 임무를 명확히 해 국민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한국해운진흥공사’로 명칭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선진 해양·수산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철현 의원, 국정감사 후속 농업분야 3개 법률안 ‘발의’

19일 농지법·농업협동조합법·김치산업진흥법 개정 법률안 발의

주철현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3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11월 19일 경자유전의 헌법정신 회복을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 산업부흥을 위해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지역 현실에 맞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 농가가 자경 농가를 초과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 정신을 위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상속인과 이농자들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때는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체농가 중 임차 농가가 51.4%로 자경 농가를 초과한 비정상적 상태이다.

법률안은 ▲농지상속인과 이농자들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농업 경영에 이용되어야 함 명시, ▲취득 후 3년 이내에 직접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을 때는 처분 의무 부과, ▲상속농지나 휴경농지 현황을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이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어 김치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

로나19 발생 이후 면역력 강화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인의 건강 애호 식품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김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2011년 김치산업진흥법이 제정됐지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집행부서 부재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김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치산업진흥원 설치 등이 요구됐었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총괄집행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 설립 ▲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정보체계 구축 규정 ▲김치산업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활성화 연구 및 대외협력, 홍보사업, ▲진흥원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 출연 또는 보조 등이다.

마지막으로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가 수 감소와 농촌 고령화 증가로 현행 농협법 조합설립 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축협은 47%이고, 지역조합은 3%에 달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인가 기준의 현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률안은 ▲설립인가 기준을 시행령에 법률로 상향시키고, ▲지역조합의 조합설립동일자 수를 현행 1천 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주철현 의원은 “농지 활용, 농업인의 조합설립 그리고 김치 산업은 농업 핵심분야 중 일부지만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며 “법률안 개정을 통해 농민들이 웃을 수 있는 농촌을 만들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해 포부] 권오봉 여수시장

“세계섬박람회·여순특별법·COP28 주력”

“3대 중점 시정 현안인 2026여수 세계섬박람회 승인, 여수순천사건 특별법 제정, 제28차 유엔기후변화 협약당사국총회(COP28)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올해 코로나 19로 인한 서민 경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무엇보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권 시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산업구조 변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수 경제 중심축인 여수국가산단은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국가산단대개조 11개 우선 사업을 본격화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저탄소 친환경 산업 생태계로 재편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수소 산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울촌2산단 내 수소산업 집적화 방안을 강구해 우위를 선점할 예정이다.

경도 개발에 따른 지역민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남대학교 예

3대 중점 시정 현안 목표 달성 행정력 집중 포스트 코로나·지역경제 활력 선제 대응 총력

너지신산업 미래융합학부를 설치해 산단 일자리 수요에 선제 대응한다.

지역 상권에도 온기를 더한다. 지역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여수형 공공 배달앱을 출시하고 카드형 섬섬여수페이를 활성화해 지역 소비를 진작한다는 구상이다.

농수산업은 생산을 넘어 가공,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돌산 갯, 옥수수 등 지역 농수산물 특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화에 집중하고 명품 브랜드로 육성해 농가 소득 기반을 넓힐 방침이다.

관광과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시경쟁력 제고에도 주력한다. 경

도해양관광단지, 화양북합단지 개발 사업 적기 추진과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선소테마정원 등 문화도시 인프라를 탄탄하게 조성하고 관광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SOC 사업도 활기를 띠 전망이다. 해양관광 도로교통망 핵심인 화태-백야 연륙·연도교와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는 각각 국비 285억원과 25억원을 확보해 공정에 속도를 낸다.

또 웅천-소호 교량과 연계한 소호-죽림 도로 개설 등 내부순환도로 교통망을 단계적으로 준비, 교통 정체 구간 최소화에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재지구와 죽림1지구, 만흥지구 택지 개발은 수요

자 중심 맞춤형 택지로 조성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부동산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유관 기관과 연계한 고강도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을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척수 손상과 소아 재활 전문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올해 착공 목표로 차질없는 사업 추진에 나선다.

돌산 지역 갯바위·산림 훼손 등 난개발 우려와 걱정에 대해 훼손된 자연 복구와 무분별한 개발 행위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돌산지역 개발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권 시장은 “2023년은 여수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기념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시민참여 추진위를 구성해 미래 100년 대계를 차근 차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오봉 여수시장, “전 시민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지급”

선불카드로 지급, 65세 이상은 현금 지급
설 명절 마지막 고비, 이동 멈춤 당부



권오봉 여수시장은 “전 시민에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권 시장은 이날 비대면 영상브리핑을 통해 국가 산단의 대규모 투자가 올해 들어 점차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4분기가 시민들께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 불편과 영업손실을 감수하며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희생에 대해 보답하고,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서 시민들의 자긍

심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에 따르면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시민 1인당 25만 원으로 720억 원 규모다. 2021년 1월 18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이 대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올해 8월 말까지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카드사용의 불편함을 감안해 65세 이상 어르신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권 시장은 “소요 자원은 도로 등 계획한 사업을 미루고, 시의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차입해 마련하겠다”면서 “시의회의와의 협의를 거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카드발행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고비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추석과 같이 귀성과 역귀성을 자제하는 이동 멈춤 운동에 시민 여러분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여수시, 지역 화훼농가 돕기 꽃 사주기 운동

‘사랑의 플라워 데이’ 사무실 꽃 생활화 운동 추진

여수시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학교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꽃 판매가 급격히 감소한 화훼농가 돕기에 나섰다.

코로나19로 꽃 수요가 급감하면서 평년에 비해 1/3 가격으로 출하되면서 화훼농가가 직격탄을 맞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주 금요일을 ‘사랑의 플라워 데이’로 지정해 2월 말까지 사무실 꽃 생활화(1table 1flower) 운동을 전개한다.

관내에서 재배한 안개꽃과 알스트로메리아꽃을 시정 직원과 농협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꽃 사주기를 추

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 산하 부처와 농협, 유관기관에서는 매주 수요일까지 농업정책과로 신청하면 이틀 후 금요일에 해당기관으로 직접 배송해 준다.

윤혜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로 화훼농가가 직격탄을 맞아 판매부진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꽃 사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봉 시장,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캠페인 참여



권오봉 여수시장은 21일 오후 시장실에서 ‘설 명절 대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

이날 캠페인에는 민주노동 여수지부 최관식 지부장과 서이철 사무국장, 전국택배노조 여수지회 육동주 지회장과 전국대리운전노조 전남지부 강금주 지부장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과 캠페인 참여자들은 ‘늦어도 괜찮아’, ‘택배기사님 덕분에’, ‘택배기사님 힘내세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에 동참해요’, ‘택배기사님 감사합니다’라는 홍보물을 들고 택배 노동자를 격려하고 응원했다.

권 시장은 “코로나19와 설 명절 때문에 택배 주문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택배 기사님께서는 안전과 건강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여수시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여수시, 청년취업자 83명에 월 10만원씩 주거비 지원

여수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83명을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당초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노동자 또는 사업자로,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며 전세(대출금 5

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여수시 인구일자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꿈을 향해 더욱邁進하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과 홍보에 힘쓰겠다”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 여순사건 홍보단 구성해 '특별법 제정' 촉구

코로나19로 국회 출입 제한, 소수정예홍보단 6명 구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략적 촉구 활동 전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순사건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여순사건 홍보단'이 구성됐다. <사진>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국회 출입제한에 따라 6명의 홍보단을 꾸려 국회 방문 등 전략적인 촉구 활동을 시작했다. 여순사건 홍보단은 여순사건 유족회가 있는 전남 동부지역 6개 시·군 중 여수시

가 최초로 꾸려졌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계획했던 국회 앞 결의대회나 토론회 등이 어려워지자, 국회 출입이 허용되는 범위의 소수의 필수 인원으로서 '여순사건 홍보단'을 구성해 특별법을 촉구하겠다는 의지다.
홍보단은 윤정근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장과 김병호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장, 여순사건 담당 부서인 시청 총무과 행정팀장과 주무관, 여수시 의회 민덕희 여순사건 특위 위원장과 기획행정 전문위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여수시와 유족회 등 민간 단체, 시의회가 참여했다.

홍보단은 첫 활동으로 지난 19일 여수 지역구 주철현, 김희재 의원 등 국회의원 300명 전체 의원실을 방문해 권오봉 여수시장 친필 서한문과 여순사건 홍보영상, 동백 배지, 동백 시계를 전달하고 특별법 제정 지지를 부탁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이제라도 사건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져,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지역민의 아픔을 달래고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게 국회의원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여수시, '여수형 섬섬여수 보건복지 플랫폼' 업무 협약 체결

8개 수행기관과 통합복지서비스 업무협약

여수시는 통합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지난 19일 2021년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수행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사업 수행기관인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사회복지관(쌍봉·소라·문수·미평), 노인복지관(여수, 동여수),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8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수형, 섬섬여수 보건복지플랫폼' 구축을 위해 복지서비스의 관문 역할, 읍면동

과 민·관 서비스 연계·협력모델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올해는 11억 6400여만 원을 들여 ▲사례관리(위기가구 발굴, 관리, 서비스 연계) ▲마을복지(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재가복지(맞춤형 영양반찬, 재가서비스) ▲건강지원(병원 치료 동행서비스, 전문의료 지원·연계) 등을 추진한다. 시범 사업지역을 작년 10개 읍면동에서 27개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대상 또한 노인을 포함한 아동, 장애인 등 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지역사회 문제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지역 통합돌봄 기반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 수행기관 8개소에 담당인력 9명을 배치하고, 읍면동복지와 건강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해 찾아가는 방문건강상담 등도 추진한다.
권오봉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민·관 협력체계가 자리잡아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여수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출범'

(사)상생나무와 민간위탁 협약식...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굴·육성 및 교육·상담 등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하게 될 '여수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가 2월부터 출범한다.
시는 수탁기관으로 '사단법인 상생

나무'(이사장 박종두)를 선정하고 지난 20일 시장실에서 민간위탁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상생나무는 2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를 맡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공유경제, 공정무역에 관한 사업 시행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견인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이 없어 불편함을 호소해 왔던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경제 진입 희망 법인 등에게 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경영지원과 컨설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센터 출범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갖춰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면서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수시 사회적경제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21개, 사회적기업 22개, 마을기업 28개, 자활기업 8개소가 운영 중으로 통합지원센터는 3월 완공을 목표로 신축 중인 '여수시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이 완공되면 신축건물 2층으로 이전해 위탁 업무를 수행한다.



권오봉 시장 등 남해안·남중권 시장·군수 10명, 정세균 총리 면담 COP28 유치 등 주요 현안 건의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18일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9개 시장·군수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 면담을 갖고 COP28 등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사진>
권 시장은 정 총리를 만나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와 관련해 국내 개최도시를 우선 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개최도시 공모 선정 시 남해안남중권 동서통합과 국가 균형발전, 지역 시민사회 참여 의지 등 다른 타 대도시와 차별화되는 점을 평가항목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는 198개 회원(196개국, EU, 교황청) 총 2만여명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로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

라 2023년 아시아 태평양권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전남 5개 시·군(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과 경남 5개 시·군(진주, 사천, 남해, 화동, 산청)이 힘을 모아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100만인 서명운동 등 활발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에 환경과 기후에 대한 이슈를 제시하고 실천해 온 여수는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통해 동서 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위한 여수선언문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며 국제적인 기후변화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 농수특산품, 우체국 쇼핑몰서 15% 할인판매

여수시는 설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수특산품 업체를 위해 온라인 판촉 지원에 나섰다. 21일 밝혔다.
여수시는 2월 14일까지 우체국 쇼핑몰 내 여수시 브랜드관을 통해 여수시 농수특산품을 할인 판매하는 '설맞이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소비자들에게 전품목 15% 할인 쿠폰을 지급해 여수의 농수특산품인 돌산갯김치, 간장돌계장, 손두부, 거문도해풍숙떡, 고등어살, 건어물 등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 볼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시는 연말까지 수시 기획전을 진행해 지역 특산품 홍보 및 매출 증대를 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설맞이 기획전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청정 여수의 우수한 농수 특산품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농수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체국쇼핑몰 여수시 브랜드관은 여수시청이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팝업존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여수시 새해 예산 1조3291억 확정 ...시의회 62억 삭감

여수시의회 정례회 폐회, 총 40건 안건 처리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사진)는 새해 여수시 예산의 승인요청액 가운데 62억 원이 삭감된 1조 3291억 원을 확정했다.

미산 불법 훼손과 관련해 촉발된 돌산지역 난개발 행정사무조사를 새해 1월부터 3개월간 진행기로 했다. 조사위는 나현수 위원장 등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돌산지역 개발행위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전남동부권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특위는 김영규 위원장, 권석환 부위원장, 이선호 의원, 이상우 의원, 이찬기 의원, 고희권 의원, 정광지 의원을 구성원으로 내년 10월까지 활동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총 4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안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의안 1건, 결의안 2건, 동의안 4건, 승인안 1건, 예산안 2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기타안건 8건 등이었다. 조례안의 경우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여수시의회 공공기관 유치특위 도의원과 간담회

섬진강유역환경청 등 공공기관 유치 협력 논의

섬진강유역환경청 등 환경 관련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수시의회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가 전남도의원과 간담회를 하며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에 따르면 김영규 위원장과 권석환 부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은 지난 20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남도의회 최무경·강문성·이광일·민병대 의원과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특위 구성취지와 활동계획 등을 공유하고 섬진강유역환경청 등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특위 구성 취지에 공감하며 전라남도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계획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환경부가 신규 환경정보다는 출장소 설치 등을 고려한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의 유치활동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여수시가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환경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응원도 있었다.

'전남 동부권 환경 보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는 산단 등이 밀집한 전남 동부권의 환경관리를 목표로 지난해 11월 활동을 시작했다. 주요 추진 목표는 섬진강유역환경청 등 환경 관련 공공기관 유치로 김영규, 권석환, 이선호, 이상우, 이찬기, 고희권, 정광지 의원 등 8명이 활동한다. 김영규 위원장은 "전남 동부권에는 여수산단과 항만, 발전시설 등이 밀집돼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지역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 동백꽃시계 전체 국회의원에 전달

19일 국회서 여순사건 법안통과 필요성 홍보

여순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라는 여수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동백꽃시계가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배부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지난 19일 민덕희 여순사건 특별위원장 등이 국회를 방문해 300여 국회의원실에 동백꽃시계를 전달하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방문에는 김병호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장, 윤정근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 여수시정부 공무원 등도 동참했다. 민덕희 위원장 등은 우선 주철현, 김희재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실을 찾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역 차원의 홍보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국회 행안위 위원 및 보좌관들과 면담을 하며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심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300여 전체 의원실을 돌며 여순사건을 상징하는 동백꽃시계와 여순사건 배지, 홍보물, 여수시장 서한문 등을 배부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7월 발의 후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민덕희 위원장은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발의 이후 현재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모든 여수시민들의 염원인 만큼 3월 국회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홍보활동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시의회 난개발조사위, 개발행위 점검

21일 토목건축 전문가 등과 소미산 일대 중점 확인

'제2의 소미산'을 막기 위해 구성된 여수시의회 난개발 조사위원회가 돌산지역 해안가 불법훼손 현황 파악에 나섰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21일 토목·건축분야 전문가, 시정부 공무원 등 18명과 함께 행정선을 타고 돌산지역 해안가 개발행위 현장을 둘러봤다. 돌산지역 개발행위가 해안가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는 행정선을 이용해 바다에서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최근 난개발로 문제가 된 소미산, 예술랜드 일대와 평사리 지장대사 인근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위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돌산지역 52곳의 개발행위 현장을 둘러본다는

계획이다.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는 돌산 소미산 불법훼손이 논란이 됨에 따라 시의회 차원의 조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구성됐다. 활동기간은 올해 1월부터 3개월이며 나현수 위원장, 권석환 부위원장, 김영규·강재현·송하진·송재향·주재현·주종섭·정광지 의원 등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조사위원으로 활동한다. 나현수 위원장은 "개발행위 인허가 이후 허가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점검을 했다면 소미산 불법훼손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며 "더 이상 천혜의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2021 코로나 극복 원년 함께 이겨냅시다

여수시의회, 설 재난지원금 지급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25일 상임위·예결특위 거쳐 본회의 당일 의결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25일 제207회 임시회를 열어 여수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예산안 처리에 나섰다.

이번 임시회는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 심사를 위한 '원포인트 의회'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이 모두 당일 처리된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18일 시 정부의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있자 설 명절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5일로 서둘러 임시회 일정을 잡았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715억 원 상당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1조2212억 원에서 715억 원이 증액된 1조2927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창곤 의장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없었던 점과, 시민들의 요구에도 지급이 늦은 점 등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시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서둘러 임시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께서 방역 수칙에 잘 따라주시고 힘든 상황을 버티시느라 고생이 많은데 이번 재난지원금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오봉 여수시장은 18일 오후 영상 브리핑을 통해 "1/4분기가 시민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로 판단한다"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 "재난지원금 지급 만시지탄이나 환영"

여수시의회가 여수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줄기차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해온 시의회 주장이 관철돼 다행"이라며 "설 명절 전 시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오봉 시장은 이날 오후 브

리핑을 열어 모든 시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해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여수시의회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방역에 협조해주시는 시민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정희 도의원, 아동학대사건 대책 간담회



강정희 도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장·여수6)은 지난달 1일 전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민병대 도의원,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동부해바라기센터, 여수시 관계자 등 12명이 모여 최근 발생한 '여수 여천동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간담회를 가졌다.

강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담과정 중 "친모가 보낸 강력한 사인들을 놓쳤다"며 사례관리 중 상담영역이 취약함을 지적하고 "상담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병대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 후 2주일이 지나야 학대아동이 분리조치 되는 등 대책마련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며 관계기관의 능감 대처를 지적했다.

박옥임(전 순천대 교수) 도의회의정자문위원은 "남겨진 두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체계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전남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한부모가정 지원시스템이 있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신고체계 구축과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광일 도의원, "청소년 위기관리 전문시설 설치 시급"



이광일 도의원(여수1)은 전남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나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위기관리와 치유를 위한 전문시설 설치에 대해

이광일 의원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

원 교육통계센터 조사 결과 중고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자살 시도율이 지난 2006년 이후 감소하다 2016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자살 시도율은 중3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중고생이 39.9%에 달했다. 국민건강통계의 만 19세 이상 스트레스 인지율과 비교해 보면 성인은 20% 후반인 반면 청소년 인지율은

35%~46%에 달했다.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은 2006년 46.5%로 정점을 찍고 2015년 35.4%까지 내려갔으나 2016년(37.5%)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의원은 "심리적 스트레스나 우울감, 자살충동 등을 겪는 위기학생들의 관리와 치유를 위한 전문시설이 절실하다"며 전문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순천의 마음키움통합지원센터와 같은 통합지원센터가 권역별로 확산 설치돼 한 아이도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전남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문성 도의원, "전남도 출연기관 청년인재 양성에 노력해야"



강문성 도의원(여수2)은 최근 열린 2021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출연기관에 지역 내 청년일자리

리를 보강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제안했다.

지역 내 대학, 특성화고, 신중년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에서 전남

테크노파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조혁신센터, 바이오산업진흥원 등과 같은 도내 선도 출연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자는 의견이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도내 지역 대학, 특성화고와 전남도 출연기관이 MOU 협약 체결을 통해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정보와 기술을 먼저 제공해 청년들의 꿈과 미래 계획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해 1만 명 정도의 청년인구 유출이 진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일자리와 정보력을 바탕으로 좋은 기업이 육성된다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범위가 확대됐고 이에 따라 신기술, 시스템의 도내 공유 인프라를 구축해 학교와 출연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전남대 여수캠퍼스, 한영대학교, 특성화고교 등이 전남 동부권 산단과의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인구유출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민병대 도의원, '청렴지도자 공헌장' 수상



민병대 도의원(여수3)원이 부패방지국민운동을 통해 청렴도를 높이고, 청렴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로로 UN국제부패방지의 날 기념 조직위원회

자 공헌장'을 받았다.

UN국제부패방지의 날 기념 조직위

(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는 부패방지국민운동을 통해 청렴도를 높이고, 청렴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UN국제단체연합 소속,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글로벌시민사회 300여개 단체와 협의회 청렴세상 조성에 공헌한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민 의원은 제11대 도의원으로 기획행정위, 보건복지환경위에서 활동하

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남도 도교육청의 예산을 면밀하고 꼼꼼하게 챙겨 불필요한 예산을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주도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 받았다.

민 의원은 "청렴한 사회가 곧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며, 투명한 의정활동은 곧 국민의 행복한 삶과도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무경 도의원, 조세제한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최무경 도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여수4)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달 16일 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농어

촌주택과 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 조세 부담이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례 요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의 과세 특례 요건을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읍면도시지역 제외, 조정대상지역 주택소유자의 경우 9억 원까지만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2021년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농어촌주택 취득 여부를 불문하고 중과세율 적용이 예정 돼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는 수도권 거주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전남의 경우 전체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위기에 놓여 있지만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용 도의원, 밀알복지재단 감사패 수상

최병용 도의원(여수5)은 지난 8일 사회복지법인 전남밀알복지재단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밀알복지재단은 지역사회복지발전을 목적으로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매년 지역에서 봉사를 실천하는 봉사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백두현장학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장학사업을 추진했고, 양로원·재활원 등 사회복지 시설에서 봉

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반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최 의원은 사고 및 재난 현장 등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여수 화양·화정면 일대 안전책임기관인 119 안전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최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앞으로 사회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